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취업지원'원스톱 지원 MOU 체결

충신대-컴앤세교회, 유국가적 과제 실천 모델 'CSU HANS' 출범
대학 행정 인프라·지역 공동체 1:1 돌봄 결합 정착 지원 '새 표준'

충신대학교(총장 박성규)는 지난 9월 2일 컴앤세교회(담임목사 김달일)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섬김 사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 주요 부처가 강조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정착·취업·정착 연계 강화'라는 국가적 정책 과제에 발맞춰, 대학 현장에 실천적인 정착 지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신대학교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자,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인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CSU HANS(Chongshin University Hospitality for All Nations' Students)' 프로젝트를

컴앤세교회를 비롯한 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CSU HANS' 멘토링 그룹을 출범해 매월 취업 역량 강화 세미나, 맞춤형 진학 컨설팅, 한국 문화 체험 및 명소 탐방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충신대 이학당을 수료하고 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도 전문 멘토단이 일대일 진학 컨설팅과 취업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내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 공동체는 역할 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 충신대학교는 캠퍼스 인프라 제공, 유학생 생활 편의, 전담 교수팀을

한 심층 상담 및 학사 정보 등 체계적인 행정·학술 지원을 담당한다. 반면 컴앤세교회를 비롯한 1:1 멘토링 그룹은 취업 세미나와 현장 중심의 기업 탐방,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격적인 돌봄을 실천하게 된다.

김동명 충신대 국제교육원장은 "이번 컴앤세교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충신대교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서부터 취업 및 안정적 정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MOU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충신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서부터 취업 및 안정적 정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MOU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충신대와 컴앤세교회의 업무협약으로 충신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서부터 취업 및 안정적 정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MOU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신대교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서부터 취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학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해 가는 모범 사례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의 행정적 인프라와 1:1 멘토링의 현장 맞춤형 돌봄 결합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새로운 지원 표준의 모델을 구축해 유학생 유치,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 文 이 박 행 목사
미션21 주필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대표
건강한국교회사회도움 상임대표
광주YMCA선교위원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가 무너져 내렸다. 네팔 탐방리봉산 일대에서 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토석류와 급류가 70km 가량 하류를 휩쓸었다. 마을과 주택, 도로와 다리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다시 닥칠지 모르는 홍수를 피하느라 높은 곳으로 몸을 옮기고 있다. 이번 참사는 한 산악국가의 자연재해로만 남길 수 없는 인류 전체를 향한 준엄한 경고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최근 거제와 통영에는 관측 이래 가장 강한 수준의 시간당 폭우가 쏟아졌다. 산사태와 결수로 주택과 도로가 파손되고 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오랜 가을 끝에 내린 비가 하천의 단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불폭탄으로 돌변한 것이다. 네팔의 비극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록 부름받은 정치가다. 그러나 인류는 자연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고 성장과 권익을 위해 숲과 강, 대기와 땅을 훼손해 왔다. 오늘의 풍요를 위해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생명의 조건까지 소비했다. 창조세계를 돌보지 않은 죄는 결국 가장 약한 생명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 피조세계의 신음은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를 돌아보라는 회개의 요청이다.

그렇다고 네팔의 비극을 성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 재난의 희생자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종말의 공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

무너진 히말라야 빙하,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정확한 원인은 계속 조사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고산지대의 빙하와 알프스 불인정현상 현상이 주목된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는 빠르게 녹고, 얼음과 암석 사이로 스며든 물은 산악지형을 약화시킨다. 빙하와 암석이 한꺼번에 붕괴하면 거대한 물과 흙, 돌이 계곡을 따라 쏟아진다. 이지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대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후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한 부유한 국가와 계층보다, 배출 책임이 적고 대응 능력도 부족한 가난한 지역 주민들이 먼저 희생된다. 네팔 주민들은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위기의 대가를 생명과 삶의 터전으로 치르고 있다. 같은 도시 안에서 노인인과 장애인, 반지하와 노후주택 거주자, 이주노동자와 영세상인이 더 큰 위협에 노출된다. 이번 재난은 자연현상인 동시에 기후 불평등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후정의의 문제다.

성경은 '땅과 거기 종민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피조물인 것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경작하고 지키

므로 기며, 재산을 쌓은 우리의 삶과 문명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네팔의 희생자들을 위로 기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재민 구호와 복구를 지원하고 선교 네트워크를 통해 고립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 동시에 예배당의 에너지 사용을 점검하고 탄소금식과 일회용품 감축, 생태교육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천해야 한다. 지역의 기후취약계층을 살리고 정부와 기업에는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 기후취약국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창조세계 보전은 일부 환경운동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의 신앙고백이어야 한다.

히말라야에서 무너진 것은 빙하만이 아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무한히 소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인류의 오만이 함께 무너졌다. 지금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네팔의 오늘이 미지않아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탄욕의 문명에서 생명을 살리는 문명으로, 무한 소비에서 절제와 나눔으로 돌아와야 한다. 무너진 히말라야 빙하는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 모른다. 이제 그 경고를 듣고 응답할 차례다.

외무부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시대와 균형성장' 주제 하계공동 학술회의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이틀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시대와 균형성장'을 주제로 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건국대 이항수 교수) 주관 하계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국역사)에서 개최됐다. 28일 전북대학교 주상현 교수(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분과에서는 한국공

공정책개발연구원 장현일 원장, 신원대학교 최예스터 교수(KBS연소소장, 인문도시사업단장)가 '통합돌봄시대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교협력과 로컬 거버넌스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기존 공공 복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종교단체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촘촘한 로컬 돌봄 안전망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외계층을 민간·종교 네트워크로 조기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자체, 주민, 종교계가 함께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정서적·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돌봄전 문지도자(미국 BOC공인체플러, APCGN, 일본 임상종교사 등)양성을 강조했다. 이상엽 교수(전대외무총



'지방시대와 균형성장'을 주제로 한, 하계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개최됐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미션21 신문을 보냅니다

밝은 크리스찬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미션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찬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09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게 되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1 정기후원 :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mi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지력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일시후원 : 계좌이체

- 농협 : 301-0090-0060-71 예금주 : (유)미션21

NEWS



작성하신 후원금으로 찍어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C.P.O. 4632-7824 / e-mail: p21@mis21.com

미션21 정기구독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복음 담은 신문 미션21이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서벽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신청일자 :	
계좌정보	
은행명 :	
예금주 :	
지정출금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만) 또는 사업자번호 :	
금액(매월) :	☐ 5,000원 ☐ 기타 ()원 ()부
출금일 :	☐ 5일 ☐ 15일 ☐ 25일 ☐ 기타 ()일
후원기관 :	☐ 법인 ☐ 기타 ()

위와 같이 출금이체계좌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 또는 서명

정통 기독교 주간신문 미션21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 (동삼빌딩 3층)
전화 : 062)367-9109, 364-9109 / 팩스 : 062)367-9108

◆ 남양주대성교회의 재정동에서 ◆
본 신문에 관하여는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가계내역, 지출내역, 세입내역)를 출금기관을 신원조사하는 데로써서 해산내역에 대해 상이 사항이 없는 것을 증명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며, 본 신문에 게재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